

민간경비 이념에 관한 연구

서진석*

요 약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Study on Private Security Ideology

JinSeok Seo*

ABSTRACT

As the axis of the private security maintain social order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all society must move in the direction of motion, and so in order to be a private security based philosophical values and ideological composition should be based. In this process, to be followed by private security value or direction, philosophy private security is the norm. In this regard, this study pursued by the private security justification ever truly normative principles are intended to establish. The public nature of the ideology of private security, public, efficiency, legality, responsiveness and the like. Conflict occurs between the value of these ideals, although complementary are in harmon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public service, publicity, efficiency, legality, responsiveness.

1. 서 론

2013년은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도입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1953년 주한 미군의 군납경비의 형태로 도입된 유형으로 1953년 용진보안공사(설립자 유화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원조경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형으로써 1962년 범아공신(설립자 윤관)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유류품과 원조물품의 검수와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민간경비산업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과 80년대와 90년대의 양적 성장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과 기계경비업의 괄목한 성장 그리고 특수경비업의 도입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민간경비산업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면서 한국 사회의 범죄예방과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찰과 함께 이제 사회질서유지라는 치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과의 갈등과 그에 따른 조화의 문제, 치안서비스의 형평성의 문제, 합법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경비산업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민간경비 이념은 상대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과 서비스의 새로운 창출은 민간경비의 이념적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경비서비스 수요자의 변화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민간경비와 경찰의 활동 영역의 변화도 민간경비의 이념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경비이념으로 본 연구

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민간경비 학문은 그 역사가 짧아서 아직 민간경비 이념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접학문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고자 한다.

2. 민간경비이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민간경비이념의 개념

이념(理念: ideology)이란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나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등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이념이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대한 일련의 신념들의 통합으로서, 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구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파악된다[1].

이념 중 하나의 특수이념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이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민간경비이념에 관한 정의와 관점은 민간경비현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라는 관점에서부터, 민간경비에서 준수되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 기준, 원칙, 민간경비가 따라야 할 규범과 원리 등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자면 일반적으로 민간경비 이념은 민간경비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 이상, 가치, 규범, 정신 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이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문화적·역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그리고 민간경비의 업무영역의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등은 민간경비의 이념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경비 이념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이념은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제시한다. 둘째, 민간경비 담당자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의 지도원칙으로 작용한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넷째, 국가와 민간경비가 처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지배적 가치를 제시해 준다[2].

2.2 민간경비에서 가치의 문제와 이념

민간경비 과정은 가치 판단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민간경비 연구 또한 가치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에서 가치와 이념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다.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이라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혹은 공익을 추구하게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¹⁾. 따라서 민간경비에서 평가와 처방은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가치위 문제는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아울러 민간경비는 이윤 추구라는 경영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경영에서도 평가와 처방에 관한 주제는 중요한 연구 분야에 속한다. 결국 경영에서도 가치 판단의 문제는 비켜갈 수 없다.

민간경비는 실제로 가치 판단의 연속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민간경비 연구 또한 가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 연구에 있어 사실 규명에 대한 연구에 더하여 가치 판단의 문제 또한 연구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실 판단에 더하여 가치 판단의 문제를 포함하는 민간경비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의 범주에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경비 이념은 민간경비 연구에서 당면하는 가치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이념은 민간경비 사상이나 민간경비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모두 가치 혹은 믿음의 체계에 관한 것이며 “분석 방법을 함축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3]. 그러나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철학은 “행위에 관련된 가치” 이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 그리고 “국가 간의 차이를 초월하며, 인간의 경험과 동기에 근거”하며, “객관적성과 냉철함의 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인식하고 해부하고 설명하기 위한 렌즈(lens)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따라서 민간경비 이념 연구에 있어서 특히 철학으로서의 민간경비 이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철학적 분석을 통하여 민간경비에서 당면하는 가치의 문제에 보다 넓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

를 제공함으로써, 이데올로기로 하여금 조건 변화에 적실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3 민간경비 이념의 다원성과 이념 간 가치충돌의 문제

2.3.1 민간경비 이념의 다원성

민간경비 이념은 단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가치와 신념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념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진 것과 같이 이념 또한 현대사회에서 보다 다원화되는 것이 사실이다[5].

민간경비 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인가? 정진환은 ‘경비업은 공공성과 기업성(능율성)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 이것이 경비업의 기본 성격이다. 이 기본 성격은 경비업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였다[6]. 민간경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고, 경비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업을 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민간사업에 해당되므로 능율성이 강한 분야이다. 이외에도 민간경비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안전 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경비서비스는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이 경비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민간경비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민간경비의 고객에 대한 입장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적극적 개념이어야 한다. 특히 민간경비는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민간경비의 윤리성은 법적·제도적 책임 외에 도덕적 책임을 동시에 진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민간경비 이념으로 공공성,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3.2 민간경비 이념의 가치상충 문제

민간경비 이념은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간경비의 발전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일치된 부분도 있겠지만, 상호 충돌 또는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1) 민간경비는 공공성을 이념으로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는 반면에 기업성 혹은 능율성을 이념으로 하고 이익 또는 개인적 이윤을 목표로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3].

있다.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능률성은 서로 상충되는 가치이다. 민간경비의 공공성을 강조하면 능률성은 침해 받게 되며, 능률성을 강조하면 공공성은 저해되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간경비 업자들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키게 되어 민간 경비산업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어느 가치이든 한 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침해를 받거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이념 간에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민간경비이념의 구성요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이념은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민간경비이념으로 공공성,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공공성(Publicity)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것을 뜻한다. 사적인 선과 공공선을 구분해 주는 공공선의 두 특징은 불가분성과 공공성이다. 불가분성은 공공선이 사적인 선처럼 분할되지 않는 불가분성을 갖기 때문에 많게 가질 수도 적게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안보는 완전한 불가분성과 완전한 공공성을 갖는 공공선이다[7].

공공성은 공익을 목표로 한다. 공익이란 민간경비 이념의 최고 가치이다. 이는 민간경비 종사자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 가치로 민간경비 분야에서도 깊이 논의될 이념이다. 민간경비에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은 공공적 편익을 갖는다는 것이다. 편익이란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이다. 민간경비는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업무상 범죄예방, 질서유지, 사회적 손실 감소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한다. 이러한 공익적 활동은 사회 치안 질서유지라는 공공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3.2 능률성(Efficiency)

능률성은 20세기 초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능률성이란 투입(input: 일정한 투입에 의해 얻어진 성과, 소득, 편익 등)의 비율로, 일정한 효과·성과·결과 등 산출을 낳는 데 있어 가급적 비용·시간·노력 등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능률과 절약(efficiency and economy)으로 이해되며, 즉 능률성은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이다.

능률성이란 일정한 투입량으로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간경비에서는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으로 경비서비스의 상품성을 극대화하거나, 일정한 산출(경비서비스의 상품성)을 얻기 위해 재정·인력 등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민간경비 전문화를 통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경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활동이다. 민간경비에 있어서 능률성이 침해받게 되면 민간경비업자들의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나아가 민간경비 분야 전체가 침체되면서 사회질서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있어서 능률성 이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능률 향상을 위해 경비절감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 효과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능률성은 형평성이나 민주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능률성의 하위요소로는 비용절감(재정, 인력 등)이나, 전문화, 성과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3.3 합법성(Legality)

민간경비의 합법성이란 모든 민간경비 활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즉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민간경비의 자의적인 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입법국가시대인 19세기 후반까지 가장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인식되었는데,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했던 유럽 대륙국가나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당연시했던 영미에서 왕권의 자의적인 발동

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법의 지배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경비에서 합법성이 강조될 경우 민간경비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둘러싼 치안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한 시기에 지나친 합법성의 강조는 민간경비의 합목적성과 기술성을 경시하고 민간경비가 법규만능으로 흐르며 형식화 될 우려도 있다.

합법성의 이념이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제시한 기본적인 가치가 민간경비 가치에도 원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으로부터 약자권익보호라는 하위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존중”은 합법성이라는 민간경비 이념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지배’의 실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준수, 적법절차, 피해구제, 약자권익보호라는 하위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8].

3.4 대응성(Responsiveness)

대응성은 이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념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논리로서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행정이라는 의미이다 [8].

대응성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형태인 민간경비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가 대상 집단의 요구 혹은 가치나 선호를 만족시키는 정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중심주의, 고객제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공공성이 강한 민간경비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제공하자는 의미이다. 이유는 고객들의 민간경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간경비의 대응성은 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 민간경비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간경비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다. 민간경비를 업(業)으로 하는 업자의 경우 민

간경비의 공공성 성격 때문에 경비업법의 법적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에 있어서 대응성은 사기업의 형태를 갖춘 민간경비에 있어 당연한 이념이라 할 수 있으나,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5 윤리성(Ethics)

일반 사회에서 윤리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련된 행동, 즉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민간경비윤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법령, 준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민간경비윤리는 법적·사회적 책임 외에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경비에서 윤리성은 종사자로 하여금 그의 공식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법령, 준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을 준수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포함한다. 윤리성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윤리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의 유형에는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이 있다. 전자는 공식적 제도나 통제장치에 의해 수동적·타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7].

또한 윤리성에는 부정·부패방지, 청렴의무와 같은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공익은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민간경비 활동은 윤리적이 되는 것이다.

4. 이념간의 우선순위

앞에서 민간경비의 이념으로서 공공성,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을 살펴보았다. 어느 이념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이념들이 동시에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추구되기란 어렵다. 여기서 이념간의 우선순위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그렇다고 어떤 이념이 우선시 된다고 해서 다른 이념이 무시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청과 가치에 따라 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무엇보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이다.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기업활동 자체가 중단된다. 능률성 이념은 민간경비에 있어서 존립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강조하는 능률성 이념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민간경비는 사회질서유지, 범죄예방, 사회적 손실감소 등 공익에 해당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 경영자가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공성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능률성 이념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경비 서비스의 질로 고객에게 만족감을 제공해야 하는 민간경비에 있어서 대응성 이념은 고객 제일주의인 사기업에서 중요한 이념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위의 능률성 보다는 우선 순위에 있어 후 순위가 될 것이다.

윤리성은 민간경비의 업무 특성상 특히 강조되는 이념이다. 민간경비 경영자의 불공정 계약행위, 집단 민원현장에서의 폭력행위의 발생, 경비원에 의한 범죄 행위 등은 민간경비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며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윤리성 이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념이다.

합법성은 민간경비 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업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업의 허가와 경영 활동 그리고 경비원들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민간경비업자와 경비원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

행하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순위로는 능률성, 공공성, 대응성, 윤리성, 합법성의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 이념간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순위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 마다 자신의 견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념 간 갈등의 문제도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이념이 추구될 때 그와 대립되는 다른 이념은 포기되어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능률성이 추구된다고 공공성이 방치되니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보다 강조되는 이념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중과 정도의 문제이지 대체나 희생은 전제로 한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이념간의 갈등 가능성은 보다 높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화될 것이 요구된다. 조화된다고 해서 모든 이념이 동일한 비중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강조되는 이념을 중심으로 조화될 것이 요구된다[9].

5. 결론

민간경비이념은 민간경비 활동을 지도하고 뒷받침하는 원칙이나 규범으로서 민간경비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민간경비이념으로 공공성,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성의 이념은 민간경비가 사회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능률성과 상호 충돌할 수 있다. 능률성은 사기업의 형태인 민간경비업에 있어 기업 이윤을 얻어야만 기업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능률성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이념이다. 따라서 공공성과 능률성의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

합법성, 대응성, 윤리성의 이념도 각각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민간경비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사회질서유지라는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 연구에서 민간경비 이념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나, 추후 민간경비 이념에 대한 학계의 후속연구가 이어

지길 바란다.

금년은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민간경비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거듭해왔다. 학문적으로는 외국 이론의 소개에 그쳤고 한국적 민간경비의 모델을 창출하는 데는 소홀히 한 면이 있다. 향후 민간경비 연구에 있어 규범적 연구에 더 충실하면서 도덕적·철학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실증적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1] 선종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 2011.
- [2] 권기현, 행정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학림, p.52, 2011.
- [3]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45, 2011.
- [4] 정용덕, ‘기획특집 편집인 서문: 행정(학)에서의 이념과 실용’,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1호(2009 봄), p.3, 2009.
- [5] 최선우, 경찰학, 서울: 도서출판 그린, p.84, 2013.
- [6] 정진환, 경비업법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p.194, 2011.
- [7] 김유미, ‘시립예술단체의 공공성 제고 방안연구: 인천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013.
- [8] 선종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0, 2011. [9] 백완기, 행정학, 서울: 박영사, p. 56, 1984.

[저자소개]



서진석 (Seo, Jin-Seok)

1987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사
 1992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석사
 2000년 2월 경원대학교 행정학박사
 2002년 3월 ~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부교수

Email : woonlim@hanmail.net